노숙자 시설 겨울나기 '비상'

교계 24곳 후원자 줄고 예산 부족

난방 · 김장 어려움…'추운겨울' 걱정

교계 노숙자 수용시설들의 월동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후원은 뚝 끊기고, 수용해야 할 노숙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계 시설들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현의 집 4곳과 경불련의 아침을 여는 집, 우리는 선우의 화엄동산 등 6곳과 옥수·구로·삼전·청담·능인·길음·자양·본동 복지관 등 14곳으로 모두 4백2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이달초부터 난방등 겨울철을 대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빈약한 재정형편에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교계에서 가장 많은 1백90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등포 보현의 집은 현재의 한달 평균 1천5백여만원의 예산으로는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든 상태다. 난방비는 물론 김장과 담요, 겨울의류, 온수시설 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조계종 복지재단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데다, 수용정원 3백20명이 꽉 들어찰 경우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시에서 난방비 등 겨울철에 필요한 지원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서울 용산과 종로, 그리고 부산 보현의 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많게는 80명에서 적게는 2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들 역시 부족한 예산탓에 후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후원도 거의 끊긴 상태.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차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뀌면서 흔쾌히 후원에 나서는 사람이나 단체는 찾기 힘들게 됐다.

이들 수용시설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안게 되는 또다른 고민은 노숙자들의 취업문제.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여러 곳의 인력회사와 연계해 일자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반영하듯 각급 회사들도 선뜻 일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실직자들만을 수용하고 있는 화엄동산은 남성들과는 달리 필요한 일상용품이 더 많은데다, 공공근로 일자리도 거의 없어 공장이나 식당 등의 일자리 찾아주기에 애를 먹고 있다.

복지관들의 경우는 복지관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어 수용시설들보다는 나은 형편. 하지만 복지관들 역시 부족한 재정탓에 후원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복지관 특성상 이들의 재활교육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

그러나 복지관들이 겨울철이 되면서 정작 우려하는 것은 이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타성에 젖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겨울철에 일자리를 잃을 경우 오히려 시설에서 안주하려는 노숙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한 각종 직업교육과 정서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등포 보현의 집 이영훈 생활지도사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부족한 대로 운영이야 되겠지만 이것은 노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교계의 관심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계 노숙자 시설

복 지 관	전 화
보현의 집(서울 영등포)	678-4992
보현의 집(서울 용산)	711-7735
보현의 집(서울 종로)	737-4894
보현의 집(부산 동래)	051-506-0146
아침을 여는 집	924-1010
화엄동산	2642-1363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282-1100
구로종합사회복지관	852-052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421-6077
청담종합사회복지관	806-1376
능인종합사회복지관	577-5800
길음종합사회복지관	985-0161
지양사회복지관	458-6796
본동사회복지관	817-8052

◇남양주 봉인사가 10월 24일 개원한 수련원 자광전.

봉인사수련원 자광전 낙성

스님 · 재가자에 개방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10월 24일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을 증명법사로 3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수련원 자광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자광전은 총건평 2백50평에 3층규모이며 법당수련장 60평, 대중방 40평, 휴게실 30평, 식당 40평, 좌선실, 행선실, 욕실과 불박이장을 갖춘 10개 방사등을 갖추고 있다.

주지 적경스님은 인사말에서 "참건주 한길로 법사의 교화도량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자광전을 건립케 됐다"며 "스님들뿐 아니라 불자들이 찾아와 자유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인사는 여래선(위빠사나) 전문수행자를 모집한다. 매달 회비 1만원이면 1년회원으로 자동가입되며, 3일 사마타수행과 7일 위빠사나수행을 통한 10일간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또 책자와 테잎, CD도 제공된다. 0346) 574-5585.

김원우 기자

부산 금정중 수계식

금정중학교(교장 서정락) 제25회 수계식이 10월 27일 학교 운동장에서 치뤄졌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에는 재학생 박영철외 293명, 교직원 가족 3명, 학부모 24명 등 총 327명이 계를 받았다.

천미희 기자

미주 한국불교 새단장 '한창'

워싱턴 보림사 천불봉안

뉴욕 백림사에 사리탑

마이애미 보현사 개원

워싱턴 보림사, 마이애미 보현사, 뉴욕 백림사등 미국내 유수 한국사찰들이 잇따라 개원식과 점안식을 갖는등 새천년 포교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워싱턴 보림사(주지 경암)는 7일 오전 10시 천불봉안 점안식 및 보살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주지 경암스님은 "미국수도 워싱턴에 천불의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은 다민족인 미국시민들이 자유평등 평화와 남북통일이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96년부터 3년간에 걸쳐 법당을 완공하고 8월에는 관음지장보살상을 조성한바 있다. 앞으로 2001년까지 탑 석등 범종 불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애미 보현사(주지 광민)도 7일 오전 9시 개원식 및 관음지장보살 봉안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2층 단독건물을 구입하여 내부수리를 해온 보현사는 불교의 불모지인 마이애미 포교에 적극나서게 된다.

이에앞서 뉴욕 백림사(주지 혜성)는 10월 24일 보궁사리탑 및 관음지장보살 점안식을 개최했다.

주지 혜성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을 불국토로 만드는 새역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보궁사리탑을 통해 동양문화와 한민족 문화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바이 무용단 우수상

제8회 전국무용제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이 10월 13일-22일 강원도 속초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우수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대표로 참석해 "카르마"라는 한국무용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우바이무용단은 파격적인 춤사위와 삶을 카르마라는 불교적 논점에서 깊이 있게 성찰한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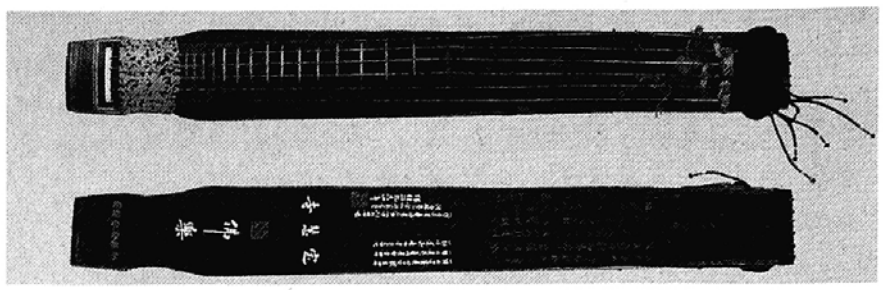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경주 제7회 월명재 행사

경주 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이임수 동국대교수)는 10월 23일 경주지역 30여개단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첨성대앞 광장에서 제 7회 월명재를 개최했다.

이임수위원장은 "월명스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인생의 멋을 아는 예술가였다"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원래 공민왕 소유였다가 수덕사에 보존전시중인 만공스님유품 거문고의 앞과 뒤 모습.

玄琴이 궁서 산사로 온 까닭은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4〉

만공스님의 거문고

만공스님과 거문고, 선사와 풍류의 상징이자 백악지장 현금(玄琴). 아무리 짜맞추려해도 인연이 닿지 않을 것같은 만남이다. 덕숭산 수덕사에 있는, 고려 공민왕 소유로 700년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채 만공스님(1871~1946)에게 전해져, 선적인 깨달음까지 배었을 거문고가 바로 그 주인공. 이 거문고는 20세기 스테디셀러의 하나로 꼽히는 최인호씨 장편소설 〈길없는 길〉의 첫권 '거문고의 비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허스님 구도소설이랄 수 있는 이 작품은 39쇄 49만부를 찍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따라서 만공스님의 거문고는 그만큼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언뜻 보기에도 명기로서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이 거문고는 은은한 붉은 기가 감돌며 옹골차 보이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졌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북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노란색 대모 등이 결코 여느 거문고가 아니라는 평이다. 길이 164cm 폭 20cm의 크기로 지난 84년 문화재자료 192호로 지정돼, 현재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이 보배로운 악기가 왕실에서 산사로 전해지게 된 경로는 아직 미스테리이다. 〈길없는 길〉에서는 실감날 정도로 자세히 전달경로를 소설화해 묘사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공민왕의 것이며, 왕실의 가보로 수많은 왕손들의 손때가 묻으면서 고종의 둘째 아들 의친왕 이강 공의 손에서 만공스님에게 신표로 건네졌다는 것. 전달 과정도 조선조말 상궁 나인들이 자주 만공스님을 친견하고 불공을 드렸던

공민왕→의친왕→만공스님

소설 '길 없는 길'로 알려져

98년부터 박물관 전시

것이 유일한 물증이며, 전달 시기도 만공스님이 수덕사에 머물면서 법을 편 1904년부터 열반에 든 1946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문고의 뒷판에는 거문고 주인이 공민왕임을 알려주는 찬문과 만공스님의 게송이 새겨져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대 감식안이었던 육조 이조묵(1792~1840)이 1837년 날렵한 초서로 새긴 찬문은 이렇다.

"玄琴富如童蒲唯環 爲至寶者 恭愍王得神桐而製此耳 其後治隱珍藏而名貴高士無不爭秦聲韻之淸爽特餘事 熟澤堂銘汾西等惜剛半磨滅足證世之質造上可幸也 丁酉竹碎日六橋撰仍題(현금이 넉넉하기로는 동포와 같지만 환패는 지보로 삼을 만하다. 공민왕이 신령스러운 오동을 얻어 이것을 만들었으니 그후 야은이 진장하고 명현고사들이 그 맑고 상쾌한 소리와 가락을 특어사로 삼아서 다투어 캐지 않음이 없었다. 택당의 명과 분서등과 더불어 진실로 아꼈으니 이제 거의 마멸되었으나 그 질은 세간에 증명하기 충분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정유년에 대를 쪼개는날 육교는 이에 제를 찬한다.)

만공스님이 소유임을 드러내는 낙관과 함께 스님의 친필로 쓴 게송은 또 이렇다.

一彈云是甚 曲 是體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句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玄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石女心中劫外曲也 咄(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체의 현현한 곡이로다.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일구의 현현한 곡이로다.

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현현하고 현현한 곡이로다. 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돌장승의 마음가운데 겁(劫) 밖의의 곡이로다. 아하)

그렇다면 만공스님의 거문고 연주 솜씨는 과연 어땠을까. 말년까지 스님을 시봉했던 현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은 "스님이 거문고를 즐겨 탔거나 잘 다루시지는 않았다. 다만, 띵 띵 하고 뜯는 정도이셨다"고 증언한다.

만공스님의 거문고는 스님이 열반한후 정혜사 다락속에 깊숙히 보관되어 왔다.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가 지난 98년 11월 수덕사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비로소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사하불교련 사무실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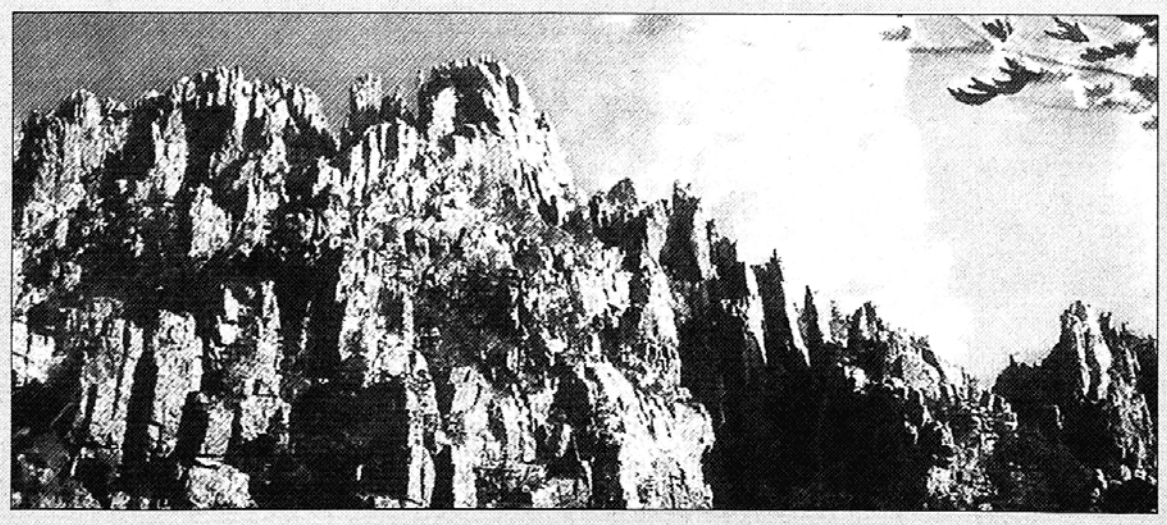
사하불교연합회(회장 종원)가 10월 23일 구별 불교연합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별도 사무실을 개소했다.

사하불교연합회는 각 구내의 사암만으로 구성된 각구사암연합회와는 달리 사하구내의 사암은 물론 신행단체도 회원으로 포함시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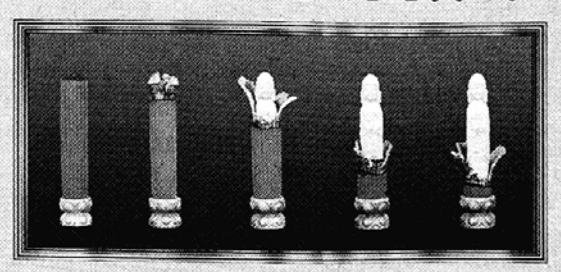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빠타코스
◐아빠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빠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9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영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